





#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문학예술발전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여나가자

##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전당과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중요한 시기에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전국 예술인대회를 몸소 발기하시였으며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번 예술인대회는 전체 문학예술인들이 당의 힘있는 사상투기로서의 우리 문학예술의 목적과 사명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주체문학예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꽃피우어 당의 혁명위업을 문학예술의 위력으로 높이 실현해나가는 데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지금 대회참가자들과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에로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문제전선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비상한 각오와 열의로 총만뒀어있습니다.

동지들! 혁명적문학예술은 인민들을 교양하고 투쟁에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사상투기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끄는 전기간 문학예술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문학 예술사가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노래의 높은 뜻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밝히시고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혁명적 문학예술발전의 비결을 명시하시였으며 친히 수많은 불후의 고전명작들을 창작하시어 주체문학예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새 조국건설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 이어서 혁명발전의 단계마다 문학예술이 나아가갈 방향과 방법을 밝히 밝혀주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길잡이 손잡이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민족적 형식이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물예술작품들이 수없이 창작되고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이 높이 떨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시어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뜻 바스기부터 문학예술이 당의 위력한 사상투기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감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문예술사상 처음으로 종자론을 밝혀주시였으며 《염화예술론》, 《주체문학론》, 《음악예술론》, 《7차예술에 대하여》, 《8차예술에 대하여》, 《11차예술》, 《무용예술론》, 《교예론》을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혁명적 문학예술발전의 백과사전적인 지침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적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문학예술혁명의 불길 이 세상에 타올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문학예술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 문학예술이 수령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어 주체문학예술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 품모를 형상한 동상들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정중하는 기념비들, 총서형식의 장편소설과 다부작형 명화들을 비롯한 수많은 수령형상작품들은 당의 문학예술로서의 우리 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문제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시고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해주신것은 우리 문학예술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린 특기할 업적입니다.

당이 지어올린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속에서 주체영화 예술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인문예술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피다마》, 《시가곡》, 《성창당》, 《시연극》이 태어났으며 5대혁명가극, 5대혁명연극, 4대명무용을 비롯한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사대주의와 복고주의적경향이 극복되고 문화와 음악, 미술과 무용,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전반이 우리

식으로 발전해나가기 되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인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문학예술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었습니다.

문학예술인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아 우리 당의 영리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하늘같은 은정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칠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을 발휘할수 있게 해근본원천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 높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나날에 독창적인 음악정치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의 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당의 붉은기정신이 그대로 맥박치는 혁명군가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친배로 폭발시켰으며 원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에서 백승을 펼쳐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습니다.

고난의 찬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락관과 방망으로 총만원 우리의 문학예술은 몇백만인의 식량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방식 이 되어 천만군민에게 믿음의 신장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고귀한 문예전통과 제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혁명적문학예술의 끊임없는 개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뒷받침해 주신다는 만만토대로 영원히 빛을 뿌리셨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문학예술건설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시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문학예술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수령형상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징을 비롯한 수령형상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도록 하시도록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에 배두산대구의 위대한 영상으로 찬탄된 길이 빛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새조각상과 새백각조상화가 인문예술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조형예술형식으로 최초의 수준에서 창작형상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과 함께 독창적인 미학사상, 비상한 예술적천품과 탐구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1980년대에 창작되었던 가요 《높이 날라와 우리의 당기》가 새롭게 형성되어 우리 인민토대의 신념의 노래로 더욱 힘있게 불리우고 《조국찬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와 같은 시대의 명곡들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 이 뜨겁게 어려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미학관, 음악예술사상을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식의 독특하고 새로운 경우에만 단 한 모퉁이만을 친히 무어주시고 참신하고 진취적이며 맥박이 있고 박동기 세찬 예술활동으로 새시대의 문학예술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감으로써 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의 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모란봉악단 창작실에서 편곡 내놓는 시대의 명작들과 젊음과 활력이 넘친 성악, 독창적이며 열정적인 가악, 세련되고 우아한 안산발과 아름다운 선율로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약동하는 기상으로 최후승리의 배일로 비약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시대정신을 온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이후 위력한 노래폭탄을 터뜨리는것으로 선전선동공세의 첫걸음을 떼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평양과 백두산지구를 중흥무진하면서 벌인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으로 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환희와 감열이 끓어치고 위대한 당을 따라 강성국가의 명마루를 향해 폭풍처럼 달릴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습니다.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어 명작창작의 종자를 주시고 형상의 전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시고도 모든 영광을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며 시대의 영웅으로까지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전체 문학예술인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앞장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가 있어 오늘 공훈국가합창단은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위력으로 변함없이 선군혁명나팔수의 역할을 다하고있으며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명령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와 같은 장엄한 음악포성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즐거운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으로 우리 군대의 필승불패의 정신력과 기상을 힘있게 떨쳐가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을 비롯한 인민군대예술단체들의 기백 넘친 예술활동으로 하여 병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조국수호의 의지, 원수적멸의 각오가 만장약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모범국의 체모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을 날로 새롭게 변모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에서 우리는 주체문학예술의 양양한 전도와 창작한 메일을 확신하고있습니다.

꽃잎은 이 자리에 온 문학예술을 혁명승리의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주체문학예술발전의 고귀한 유산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림과 동시에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오늘의 시대적 형상창조는 우리 사상투기인 우리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선도하고 총진군에 앞장서 나팔소리를 울려야 할 문학예술부문에 새로이 오를 주체100년대의 역사적인 전진길에서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 인민의 지향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의 앞장에서 돌고돌아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있습니다.

당의 령도대로 영화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나날에 우리 영화부문에서는 해마다 수십편의 영화가 나왔으며 최고제작년인 1983년 한해에만도 혁명영화 《조선의 별》 제7부와 예술영화 《진환의 해》, 《만병초》, 《시련을 뚫고》를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많은 영화들이 창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끊임없이 창작되는 새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언제나 흥성이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투장마다에서는 영화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최근년간 영화부문에서는 온전한 예술영화나 멜로비준극작품을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속에서는 수많은 영화연출가, 영화배우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영화창작의 첫 공정을 맡고있는 영화화학자들이 특특한 영화화학한련 내용을 못하고있는것이 문제입니다.

당에서는 영화화학작업을 위하여 최상의 창작조건을 마련해주고있으나 많은 작가들이 허송세월하면서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문학부문에서도 오늘의 시대적인 성격이 있고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좋은 명작들을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이후 위력한 노래폭탄을 터뜨리는것으로 선전선동공세의 첫걸음을 떼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평양과 백두산지구를 중흥무진하면서 벌인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으로 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환희와 감열이 끓어치고 위대한 당을 따라 강성국가의 명마루를 향해 폭풍처럼 달릴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습니다.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어 명작창작의 종자를 주시고 형상의 전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시고도 모든 영광을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며 시대의 영웅으로까지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전체 문학예술인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을

못하고있는데로부터 가사화할수 없는 내용을 생경하게 라명한 작품들, 자화자찬하며 사실과 맞지도 않는 공든 소리와 문화성도 없는 표현들이 들어있는 한심한 작품들을 내놓아가사문학, 시문학의 풍격을 심히 떨어뜨리고있습니다.

소설문학작가들도 장, 중편소설을 창작하고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작품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성을 잃어가고있고 형상하지 못하고 철학성과 지성도가 보장되지 못하여 독자들을 잃고있습니다.

무대예술부문의 실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에서는 오늘의 사상전, 선전선동공세에 발을 맞추어 적극적인 작품창작과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인민들과 공감도 하고 그들을 교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중앙예술단체들이 극장무대에서만 맴돌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되는 강성국가건설단계에 적극 달려나가 공연활동을 진두적으로 벌리지 않으므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역할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물론 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도 높아지지 않고있습니다.

지방예술단체들의 경우에도 중앙 예술단체들의 흉내나 내면서 예술적 조사업에서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살리지 못하고있으며 조건타협만 하면서 정제선동활동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전개해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미술부문에서는 2012년 한해만 보더라도 여러차례의 전람회와 열리고 많은 작품들이 입선되었다고 하지만 오늘의 약동하는 시대정신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형상창조는 높은 명작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지난 시기에 비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의 수가 적어졌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좋은 작품은 더 나오지 못하고 한두해도 아니고 찌꺼기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사립들의 마음속에 갈라져있고 조국애를 잃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잊고있는 제독시절수 있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가 될수 없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불려일으키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아름다움 향기와 정서 자치되는 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과 더불어 문학예술의 차이를 모든 면에서 하늘따라 만들어 우리 인민의 심정속에 불어넣는 노래만이 간직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학부문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 《총성의 한 걸음》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배두산건설위업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형성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사상예술적정지를 개척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와 소설, 영화문학, 극작품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와 종류의 작품들을 심오한 철학성과 높은 지성도가 보장된 명작들로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선군문학의 혁신적면모를 더욱 뚜렷이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영화부문에서는 새 시대의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는 영화화관, 영화미세일들을 광범 만들 더욱 빛나이는것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전환기인 오늘 그 어느때

문학부문에서도

오늘의 시대적인

성격이 있고 인민

들의 생활과 투쟁

를 위해 형성한

다그치는것과 함께

이 시며 회세의 선

명명화창작을 더는

미흡수없는 지

포화, 명중로화로

반동적인 사상문화

를 제압하고 온갖

비사회주의와 퇴

폐적인 생활풍조를

살아버리지 못한

다면 우리의 정치

사상전진에 금이

가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제도자체

를 위협에 빠뜨리게

됩니다. 특히 중요

한 의의를 가진

문학예술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입니다.

혁명적문학예술

의 집중포화, 편속

소설문학작가들도

장, 중편소설을

창작하고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작

품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

성을 잃어가고있

고 형상하지 못

하고 철학성과 지

성도가 보장되지

못하여 독자들을

잃고있습니다.

무대예술부문의

실례도 마찬가

지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에서는

오늘의 사상전,

선전선동공세에

발을 맞추어 적

극적인 작품창

과 활발한 공연

활동을 진두적

으로 벌리지 않

으므로 대중의



# 제 9 차 전 국 예 술 인 대 회 서 한 도 론 들

## 당중앙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새시대 음악예술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겠다

### 모란봉악단 단장 현승월

저는 먼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뜻깊은 연단에서 문학예술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새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란봉악단이 태어난지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술단체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예술인들의 인생에서도 2년이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란봉악단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자리잡고있으며 악단의 노래는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생활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놀랄만큼 짧은 기간에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역사가 오랜 예술단체들에 못지 않는 명성을 얻은 모란봉악단의 오늘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 같은 믿음과 따뜻한 손길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사이에서 맺어진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열백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천체적인 음악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 위대한 력사의 순간순간들을 제논으로 보고 체험하는 행운을 받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우리 악단의 첫걸음부터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하얀눈이 이야기들가운데서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조신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피와 살로 새겨야 할 키워음을 받아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악단이 처음 조직되었을 때 저를 비롯한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분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이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는 우리 악단의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름성악단들의 이름우에 단연코 울려놓을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기세충천하여 달려왔습니다.

배우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들이 내놓은 명곡작품들도 형성해보고 창작가들은 경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프로그램도 연구하였으며 일꾼들은 또 명성 높은 악단들의 운영과 활동방식에 대하여 파악하느라 애썼습니다.

이러한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 몸, 자기 터전을 떠나서 어떤 세계적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기본사명은 우리 혁명파 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무기가 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정한 예술창조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모란봉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비결도 바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는 금옥같은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악단의 음악을 채보하여 형성하는것도 좋지만 민족음악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파 사랑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에 못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물을 위주로 하는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인민이 누구나 다 좋아하던 그것이 바로 세계적이었고 이진정한 예술이라는 철리가 맥맥히 흐르고있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는 명작이란 우리 인민을 흥분시키고 격동시키는 음악이었고 새시대 예술의 최첨단이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의 지향과 감성정서였습니다.

하나하나의 곡목선정으로 부터 편곡과 배우들의 연기형상, 분장과 인사법, 무대조명과 장치, 음향조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 위대한 력사의 순간순간들을 제논으로 보고 체험하는 행운을 받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우리 악단의 첫걸음부터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하얀눈이 이야기들가운데서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조신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피와 살로 새겨야 할 키워음을 받아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악단이 처음 조직되었을 때 저를 비롯한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분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이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는 우리 악단의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름성악단들의 이름우에 단연코 울려놓을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기세충천하여 달려왔습니다.

배우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들이 내놓은 명곡작품들도 형성해보고 창작가들은 경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프로그램도 연구하였으며 일꾼들은 또 명성 높은 악단들의 운영과 활동방식에 대하여 파악하느라 애썼습니다.

이러한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 몸, 자기 터전을 떠나서 어떤 세계적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었습니다.

그 무수한 자축자축은 진정한 원수님께서 보아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명이 지고 손끝이 터져 생살로 바이올린선을 짚으면서도 원수님 로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훈련, 한차례한차례의 공연에 최선을 들이고 피땀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과 떨어져 흐른 시간이 1분1초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원수님을 그리고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려는 이런 뉘앙스, 이런 충정으로 한나절에 한곡을 편곡하고 하루동안에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였으며 3-4일동안에 하나의 새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날에 10대의 나 어린 신인배우가 인민의 사랑받는 명가수로 자라나고 평범한 창작가가 새시대의 영웅작곡가로 되었으며 갖 조지된 예술단이 원수들이 무서워하는 백발백중의 근위포병단으로 되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우리의 일과를 맞추고 한편의 명작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강ירו 부시고 목숨까지 바치려는 각오이고 의지와 투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처럼 살며 싸우자!

우리 원수님을 닮자! 모란봉악단의 결집을 모르고 진할줄 모르는 썩어지 썩어지, 기백과 열정은 바로 이런 충정의 세계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데는 누구에게도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동지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학예술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조신의 예술을 세에 떨치고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바치고 계십니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작을 내놓을 야심과 포부를 지닌 예술가라면 우리 원수님의 리상과 로고를 제논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우리는 훈련과제를 못하고서는 잘자리에서 들수도 없고 멋있는 것 목상을 찾아내기 전에 는 밥술을 뜯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급이나 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없다며 이 한몸이 그대로 오신자가 되고 마이크가 되어서라도 명작 목표를 쏘내자!

우리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체절절하며 싸웠습니다.

민방역에 맡은 담이때고 홀로 성악편연을 할때도 원수님앞에 선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수도와 멀리 떨어져 북방의

한끝에서 공연할 때에도 원수님께서 보아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명이 지고 손끝이 터져 생살로 바이올린선을 짚으면서도 원수님 로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훈련, 한차례한차례의 공연에 최선을 들이고 피땀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과 떨어져 흐른 시간이 1분1초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원수님을 그리고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려는 이런 뉘앙스, 이런 충정으로 한나절에 한곡을 편곡하고 하루동안에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였으며 3-4일동안에 하나의 새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날에 10대의 나 어린 신인배우가 인민의 사랑받는 명가수로 자라나고 평범한 창작가가 새시대의 영웅작곡가로 되었으며 갖 조지된 예술단이 원수들이 무서워하는 백발백중의 근위포병단으로 되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우리의 일과를 맞추고 한편의 명작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강ירו 부시고 목숨까지 바치려는 각오이고 의지와 투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처럼 살며 싸우자!

우리 원수님을 닮자! 모란봉악단의 결집을 모르고 진할줄 모르는 썩어지 썩어지, 기백과 열정은 바로 이런 충정의 세계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데는 누구에게도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동지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학예술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조신의 예술을 세에 떨치고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바치고 계십니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작을 내놓을 야심과 포부를 지닌 예술가라면 우리 원수님의 리상과 로고를 제논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우리는 훈련과제를 못하고서는 잘자리에서 들수도 없고 멋있는 것 목상을 찾아내기 전에 는 밥술을 뜯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급이나 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없다며 이 한몸이 그대로 오신자가 되고 마이크가 되어서라도 명작 목표를 쏘내자!

우리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체절절하며 싸웠습니다.

민방역에 맡은 담이때고 홀로 성악편연을 할때도 원수님앞에 선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수도와 멀리 떨어져 북방의

## 노래 《조국찬가》와 같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명곡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 공훈 국가합창단 창작실장 설태성

저는 천만군인이 즐겨부르는 노래 《조국찬가》가 우리 조국의 제 2 의 애국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곡으로 태어난 과정에 체합한 사실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가사를 쓸 때에는 정치사상적내용을 시적감정에 담아 생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가사는 필수품 생활적인 어휘와 형상적인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내용을 잘 조성하여 시적감흥이 안겨오게 써야 한다.》

지난해 9월 우리가 창작한 노래 《인민공화국 찬가》를 친히 들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노래의 곡은 좋은데 가사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한성이 있어 제목도 고쳤고 가사도 다시 썼다고 하시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합창단에서도 형성하고 모란봉악단에서도 형성하면 되었을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내려보내주신 《조국찬가》의 가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담고있는 내용과 폭이 너무나 거대하여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떤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진 하나의 행성파도 같은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내용과 폭에 비해 표현은 작고 소박하게, 솜는처럼 부드러운 친화력을 가지고 순간에 천만사람의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훈베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기대대의 선반공도, 엄마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도, 장기를 두드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로인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집따라 조국여러라》를 부릅니다.

요즘 노래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가 흘러나오고있으며 가사가 까다롭고 외우기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를 쉽게 부르고있습니다.

조국이란 거대한 의미를 그처럼 소박한 인민대중의 생활적인 어휘로 노래했다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작품창작의 진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가사의 구절구절, 표현 하나하나에 세겨진 뜻을 음미해 볼수록 우리가 처음에 지어냈던 크고 요란하면서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생동한 화풍들을 소박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어휘들로 열사람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엮어진 가사는 우리의 심장을 거머쥐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광광 흔들어 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노래 《조국찬가》의 가사에 인민의 생활, 인민의 어휘를 그대로 담아 조국에 대한 사랑의 철학을 진명하심으로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자라지않, 보진주, 형식주의, 때배주의 등 경리적 사관관점에 물젖어있는 우리 창작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도록 문학 예술혁명의 포성을 울리시었습니다.

우리 공훈국가합창단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의도를 받들어 음악창작에서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며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그 날에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태일당의 현대판총파행위가 폭로되고 그자들을 단호히 처갈진 후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나온 노래인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형성창조하였으며 려이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를 창작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모란봉악단의 창작가들처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곡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정신을 고수추동하는 우리의 정의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울려주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 나서자란 공훈 국가합창단의 영예를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빛내어나가겠다

### 공훈 국가합창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 장룡식

저는 먼저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천체적이며 정력적인 령도도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일대 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제 대회참가자들의 열화같은 흥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난생처음 이처럼 대회의 영광스러운 연단에 오르고 보니 평범한 지휘자에 불과한 제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공훈국가합창단 단장의 무거운 임무를 받아안았을 때의 심정이 되살아납니다.

편곡을 하라든가, 형상을 하라든가 하면 제나름으로 해볼수 있는 것이지만 공훈국가합창단을 본보기로 선군예술의 최고정기기를 펼쳐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저의 고충을 다 헤아리신듯 사랑의 전화를 걸어주시어 사임은 시작하였는가, 결리는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정히 물어주시었습니다.

부모앞에서 어리광부리는 철부지자식처럼 속상한 일을 두서없이 이겼저겼 다 아라는 저의 말을 무릅없이 들어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너무 격정할진 같았고, 동무가 나의 미학관을 아니 좌왕우왕하지 말고 동무식대로 내일면 된다시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결린 문제는 자신께서 풀어주셨으니 공훈국가합창단은 예술적기량이 높은 말그대로의 예술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걸음마를 떼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고쳐주시어 사상도 더 뚜렷해지고 선율도 더 힘있고 개성적인것으로 되었으며 가사와 선율의 밀착도 더 잘된 노래를 불러보면서 저희들은 정녕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시야야말로 누구도 따를수 없는 예지와 슬기를 지니신 예술의 천재이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은 합창만이 아니라 관현악단도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답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관현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하나도 먼저 모란봉악단에서 이미 형성하였던 《세계동화명곡뮤지컬》과 《세계명곡뮤지컬》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우리

작품의 첫 연주를 들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편곡을 제외하고는 과정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해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고 후반부분 합창대목의 누구도 마치 못해볼 반복할 때 마치 못해볼 웨치는 식으로 하면 멋있을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날 이 노래를 5차대들으시면서 어느대목에서든지 팬파리가 나오면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민족성을 살리는 문제는 어느때나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며칠후 이른아침 또다시 전화를 걸어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노래 《우리 일출 밝다》는 가사가 좋기때문에 3절까지 다 부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2절에서 3절로 직접 들어가라고, 2절이 전조를 하라고 하시면서 간주는 그 다음에 그대로 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지금껏 2절까지 하고 간주를 한 다음 3절을 하는것을 유일한 편곡방법으로 일단 저희들은 구태의연한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착상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부가 전만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던것입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지도 밑에 합창단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양상의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 통하여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안되는 일이 없으며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순간도 떼어놓으면 살수 없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심장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은 합창만이 아니라 관현악단도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답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관현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하나도 먼저 모란봉악단에서 이미 형성하였던 《세계동화명곡뮤지컬》과 《세계명곡뮤지컬》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우리

편현악단의 편성에 맞게 다시 편곡형상할때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 창작과정에서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창조현장에 나오시어 바이올린연주자들의 활상은 방법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으며 늘 형상지도를 한다는 지휘자나 어느 연주자도 알수 없었던 세부적인 걸까지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원인과 해결 방도까지 명쾌하게 밝혀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현악단이 합창만주만 하다고만 관현악의 진맛을 잘 모르고 경직되어있었는데 관현악작품들을 많이 연주해보면 그 맛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을 연주됨을 비롯한 기량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훈국가합창단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관현악단은 지난날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관현악곡들도 원만히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처럼 헌신의 로고를 다하여 우리들을 이끌어주셨지만 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술대로서의 체모를 갖추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언덕들이 수없이 많음을 저희들은 어느때보다도 깊이 절감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합창단의 예술성을 높여서 성악배우들의 기량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지금 성악배우들이 형상도 잘못하고 노래부르는 자세도 한모양새인데 꽃꽃하게 서서 노래부르는 틀을 깨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며 앉았으나서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보에 담긴 격정을 몸에 배게 하기 꼭 무의익하여 강제체제가 들어 노래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배우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하여 리듬과 장단을 잘 타도록 한 3개월정도 타악기조 훈련을 시켜보라고 하시면서 리듬은 음악의 기초인것만큼 기초를 닦지만 이것만 세게 하면 안된다고 일깨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선군혁명전진가 한현악관현악기들의 합창을 멈추지 않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예술부대, 김정은합창단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우리 당의 독창적인 미술론을 창작활동에 구현하여 주체미술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나가겠다

###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김성민

우리의 주체미술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최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민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여의적당한 신념을 지니고 영삼미술작품을 비롯한 창작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근대와 인민을 대고조진군대로 고무추동한다》라 적어 이바지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만수대창작사에 찾아오시던 주제 100(2011)년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0여차례의 현지지도의 자축을 세기시켰고 1000여차례의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 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진정한 충정을 현몽으로 지니신 혁명정리리의 최고화신이며 우리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시

라는데를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체적인 예지와 송고한 도덕의리성에 의하여 만수대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각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밝고 정중히 모실수 있게 되었으며 모자이크태양상과 태양상 초상화, 초상휘장이 새롭게 훌륭히 형성되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체만세 시고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립상을 섹조각상으로 새롭게 형성할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충정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불타는 열의에 넘쳐 창작전투에 떨쳐나 끝끝내 제기일언에 최상의 수준에서 형성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집은 곧 승리이며 원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드물지 않는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수령형상창조의 새로운 길을 밝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미술의 전반발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관수선태양상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만수물놀이장과 미림삼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옥유자동맹원, 충도공작소소년단야영소 등 수많은 건축물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는 황송함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밝고 찬찬할 주체미술의 전도를 확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수령형상미술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데 비하여 미술의 모든 분야를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다같이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미술부문이 당의 사상과 의도

에 따라서 못하고있는것은 저를 비롯한 미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들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미학관을 창작실현에 안락하게 구현하려는 불타는 충정과 창조적열의가 부족하기때문입니다.

우리 만수대창작사와 미술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주체미술의 일대 개화기를 펼치기 위하여 헌신적 분발해나서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미술 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절결히 옹호추수하며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적극 파러배대담하고 선취적이며 혁신적인 일본새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미학관과 미술론으로 철저히 주장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창작과 지도사업을 짜고들으며 주체미술의 자랑찬 성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며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부가 전만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던것입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지도 밑에 합창단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양상의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 통하여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안되는 일이 없으며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순간도 떼어놓으면 살수 없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심장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은 합창만이 아니라 관현악단도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답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관현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하나도 먼저 모란봉악단에서 이미 형성하였던 《세계동화명곡뮤지컬》과 《세계명곡뮤지컬》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우리

편현악단의 편성에 맞게 다시 편곡형상할때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 창작과정에서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창조현장에 나오시어 바이올린연주자들의 활상은 방법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으며 늘 형상지도를 한다는 지휘자나 어느 연주자도 알수 없었던 세부적인 걸까지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원인과 해결 방도까지 명쾌하게 밝혀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현악단이 합창만주만 하다고만 관현악의 진맛을 잘 모르고 경직되어있었는데 관현악작품들을 많이 연주해보면 그 맛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을 연주됨을 비롯한 기량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훈국가합창단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관현악단은 지난날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관현악곡들도 원만히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처럼 헌신의 로고를 다하여 우리들을 이끌어주셨지만 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술대로서의 체모를 갖추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언덕들이 수없이 많음을 저희들은 어느때보다도 깊이 절감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합창단의 예술성을 높여서 성악배우들의 기량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지금 성악배우들이 형상도 잘못하고 노래부르는 자세도 한모양새인데 꽃꽃하게 서서 노래부르는 틀을 깨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며 앉았으나서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보에 담긴 격정을 몸에 배게 하기 꼭 무의익하여 강제체제가 들어 노래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배우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하여 리듬과 장단을 잘 타도록 한 3개월정도 타악기조 훈련을 시켜보라고 하시면서 리듬은 음악의 기초인것만큼 기초를 닦지만 이것만 세게 하면 안된다고 일깨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선군혁명전진가 한현악관현악기들의 합창을 멈추지 않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예술부대, 김정은합창단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부가 전만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던것입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지도 밑에 합창단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양상의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 통하여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안되는 일이 없으며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순간도 떼어놓으면 살수 없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심장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은 합창만이 아니라 관현악단도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답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관현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하나도 먼저 모란봉악단에서 이미 형성하였던 《세계동화명곡뮤지컬》과 《세계명곡뮤지컬》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우리

편현악단의 편성에 맞게 다시 편곡형상할때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 창작과정에서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창조현장에 나오시어 바이올린연주자들의 활상은 방법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으며 늘 형상지도를 한다는 지휘자나 어느 연주자도 알수 없었던 세부적인 걸까지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원인과 해결 방도까지 명쾌하게 밝혀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현악단이 합창만주만 하다고만 관현악의 진맛을 잘 모르고 경직되어있었는데 관현악작품들을 많이 연주해보면 그 맛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을 연주됨을 비롯한 기량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훈국가합창단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관현악단은 지난날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관현악곡들도 원만히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처럼 헌신의 로고를 다하여 우리들을 이끌어주셨지만 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술대로서의 체모를 갖추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언덕들이 수없이 많음을 저희들은 어느때보다도 깊이 절감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합창단의 예술성을 높여서 성악배우들의 기량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지금 성악배우들이 형상도 잘못하고 노래부르는 자세도 한모양새인데 꽃꽃하게 서서 노래부르는 틀을 깨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며 앉았으나서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보에 담긴 격정을 몸에 배게 하기 꼭 무의익하여 강제체제가 들어 노래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배우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하여 리듬과 장단을 잘 타도록 한 3개월정도 타악기조 훈련을 시켜보라고 하시면서 리듬은 음악의 기초인것만큼 기초를 닦지만 이것만 세게 하면 안된다고 일깨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선군혁명전진가 한현악관현악기들의 합창을 멈추지 않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예술부대, 김정은합창단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제 9 차 전 국 예 술 인 대 회 에 서 한 도 론 들

## 당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고 위대한 김정은시대 음악예술혁명의 제1바이올린수로 삶을 빛내여나갔다

### 모란봉악단 배우 차영미

몇년전까지만 해도 나 어린 음악소녀에 불과했던 제가 오늘과 같이 예술인대회의 높은 연단에 서게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20대 초엽, 드넓은 음악전선의 나 어린 신입병사라도 같은 저를 일류악단의 바이올린연주가로 키워준 마사로운 사랑에 대하여 되새겨볼 때마다 훗날이 되어서 감사의 정으로 목메이곤 합니다.

동지들은 아마 기백있고 열정적인 연주, 재민 안삼블, 풍동적인 대형변화 등으로 사람들을 황홀한 음악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저희들의 공연을 보면서 모란봉악단 배우들은 악단에 오기 전부터 저런 독특한 기량을 소유하고있었는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량수준과 배우생활 경험할것이지 대단히 어린 음악계의 초학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오다나니 마음의 안삼블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라고 하던 일을 생각해보아도 그렇고 높은 수준에서 편곡된 악보를 दो호히 연주할수가 없어 저도모르게 당황해하던 일을 되새겨보아도 금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악단의 연주가들이 정말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연주할 때는 자신들이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대 공연에서 배우들은 판중을 정취하고 그들을 음악세계로 끌어들이 함께 호흡하도록 만드는것이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었는데 그러자면 길이라는 생활체현에 기초한 진실한 연주형상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고 배우생활경험도 어린 저희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대한 체험은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나니 자기가 연주하는 작품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답답하게 연주하였으며 공간울림속에서의 자기 역할도 느끼지 못하였습니 다.

그야말로 우리는 연주가가 아니고 연주기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이 풍부한 생활체험이 연주가의 생명으로 된다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뜻깊은 계기는

노래 《배풍과 흥보》의 연주를 연습할 때였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혼련장까지 몸소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희들의 연주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며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원수님께서 우리의 연주모습을 보아주시는 기쁨으로 신이 나서 활을 굶고 건반을 짚으면서도 이따금씩 원수님께서는 쪽을 우러르곤 하였습니 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노래의 절정된 선율을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조용히 고이는것이였습니다.

순간 흥- 하는 세찬 충격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습니다.

아버이장군님 한분만 믿고 습격을 이으며 살아온 지난날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이께서 바쳐오신 선물을 받고 모든 헌신의 모습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 흘러다녔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고깊은 눈송이 저희들의 가슴속에도 미처오지 않았습니 다.

저희들은 연주를 하고있다는 생각도 잊고 끝내 참고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내가 그리움의 감정으로 슬막히는 속에 저희들은 소리내어 울면서 연주를 계속하였습니 다.

우리가 인민의 감정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감정이 우리의 연주속에서 새로운 음악세계를 펼쳐놓는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악기를 다루는 자기의 손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그 울림은 일찌기 어버지 못한 폭넓고 진실한것이였습니다.

제힘이 없는 연주가가 내는 소리와 체험이 없는 연주가가 내는 소리가 하늘과 땅차이라는 하나의 음악전리, 가장 진실한 인간의 감정이 어떤 숨엄한 축적과 체험으로부터 승화되고 폭발되는것인가를 실지생활속에서 깨달은 것임을 잊을수 없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체험한 연주가만이 진실로 민주사회의 심장을 울려주는 진정한 인본적인 선물을 형성해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체험을 어린 나이

에,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만한 불굴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는가를 상상해보니 저희들이 보내는 낮과 밤이 너무나 한가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분투, 온갖 열정을 음악에 쏟아붓는 불굴의 노력은 연주가에게 있어서 제1의 천성으로, 가장 선자적인 실력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연주가동지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당의 사랑에 실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남다른 열망, 지구상에 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연주가가 되겠다는 만만치 않은 야심을 품고 괴를 뚫으며 노력한다면 그가 누구든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이 기억하는 명연주가, 선군조선의 자랑으로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예술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리우고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혁명적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나이는 어린데 연주를 잘한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마땅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젊은 나이에 도달한 얼마간의 예술기량 하더라도 우리가 더 높이 비약하고 더 피라게 노력할수 있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젊음이 담보해주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의 밤마다에 써붙인 《열대도 자만해서는 안된다》는 구호를 생활과 연주의 좌우명으로 삼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지금보다 더 시간을 아껴 비약하자라는것이 저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각오입니다.

연주가가 되지 말고 연주가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열정적으로 기백있는 연주,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전투장마당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노래하고 응위하는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나갔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혁명의 총대 편역 역게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쓰는 순간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도 충실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음악예술혁명의 제1바이올린수로 삶을 빛내여나갔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그 나날에 저희들은 연주자 말고 피리는 노력의 산물이며 연주가야말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분투, 온갖 열정을 음악에 쏟아붓는 불굴의 노력은 연주가에게 있어서 제1의 천성으로, 가장 선자적인 실력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연주가동지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당의 사랑에 실력으로 보답하겠다는 남다른 열망, 지구상에 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연주가가 되겠다는 만만치 않은 야심을 품고 괴를 뚫으며 노력한다면 그가 누구든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이 기억하는 명연주가, 선군조선의 자랑으로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예술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리우고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혁명적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나이는 어린데 연주를 잘한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마땅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젊은 나이에 도달한 얼마간의 예술기량 하더라도 우리가 더 높이 비약하고 더 피라게 노력할수 있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젊음이 담보해주고있다는것입니다.

우리의 밤마다에 써붙인 《열대도 자만해서는 안된다》는 구호를 생활과 연주의 좌우명으로 삼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지금보다 더 시간을 아껴 비약하자라는것이 저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각오입니다.

연주가가 되지 말고 연주가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열정적으로 기백있는 연주,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으로 전투장마당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노래하고 응위하는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나갔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혁명의 총대 편역 역게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쓰는 순간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도 충실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음악예술혁명의 제1바이올린수로 삶을 빛내여나갔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당정책과 현실, 이 두가지를 틀어쥐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 조선인민군 허철수소속부대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 3월 10일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서 당선된 우리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당정책으로 만장약된 공연, 당의 사상이 깃들여진 공연, 바늘들어갈 뚫도 없이 잘 짜인 공연, 자기 부대의 특성과 얼굴이 살아나는 힘있고 박력있는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으며 전체 창작가, 배우들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창작가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교락을 같이하여야 그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좋은 작품들을 써낼수 있고 자신도 혁명화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예술의 힘은 원자탄보다 위력하며 당정책과 현실, 이 두가지를 틀어쥐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이 당의 지시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렇게 창작형상한 창작이야기 《명사수 우리 중대 돌아온다》는 군인들속에서 커다란 실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정책 반영에서 시기성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을 놓치면 당정책과 대중이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소한 현상들과 생활 세부들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작품들에 반영하였고 공연무대에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9월 전연순회공연을 하던 우리가 어느 한 중대에 갔을 때 한 군인이 유적속에 군복을 슬그머니 갈아입는것을 보

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마치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군복을 몰래 갈아입고 다른 군인에게 요즘 몸이 자주 나니 앓을 때마다 군복바지가 더러워진 것 같아 사관장에게 사정사정해서 한수수 큰것으로 겨우 바꾸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군인이 자기도 목단수를 제우기가 힘든데 사관장한테 이야기하면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이게 무슨 작품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퍼수신 풍농사, 수산, 축산의 3대열풍속에 병사들의 실 생활이 높아지니 중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중대를 찾은 창작가들은 그 즉시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을 진행하였 습니다.

이렇게 창작형상된 재담 《눈아간다》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명사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것 같다고 하시며 이런 작품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창작가만이 창작할수 있다고 파본한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만약적적 장성열매와 같이 당에 도전했었다면에도 군복을 슬그머니 갈아입는것을 보

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마치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군복을 몰래 갈아입고 다른 군인에게 요즘 몸이 자주 나니 앓을 때마다 군복바지가 더러워진 것 같아 사관장에게 사정사정해서 한수수 큰것으로 겨우 바꾸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군인이 자기도 목단수를 제우기가 힘든데 사관장한테 이야기하면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이게 무슨 작품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퍼수신 풍농사, 수산, 축산의 3대열풍속에 병사들의 실 생활이 높아지니 중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중대를 찾은 창작가들은 그 즉시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을 진행하였 습니다.

이렇게 창작형상된 재담 《눈아간다》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명사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것 같다고 하시며 이런 작품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창작가만이 창작할수 있다고 파본한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만약적적 장성열매와 같이 당에 도전했었다면에도 군복을 슬그머니 갈아입는것을 보

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마치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군복을 몰래 갈아입고 다른 군인에게 요즘 몸이 자주 나니 앓을 때마다 군복바지가 더러워진 것 같아 사관장에게 사정사정해서 한수수 큰것으로 겨우 바꾸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군인이 자기도 목단수를 제우기가 힘든데 사관장한테 이야기하면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이게 무슨 작품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퍼수신 풍농사, 수산, 축산의 3대열풍속에 병사들의 실 생활이 높아지니 중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중대를 찾은 창작가들은 그 즉시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을 진행하였 습니다.

이렇게 창작형상된 재담 《눈아간다》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명사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것 같다고 하시며 이런 작품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창작가만이 창작할수 있다고 파본한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만약적적 장성열매와 같이 당에 도전했었다면에도 군복을 슬그머니 갈아입는것을 보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혁명군대의 전투적기백으로 음악창작창조활동을 벌려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다

### 조선인민군군악단 단장 리응식

해방후 정규무력건설과 더불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혁명군악은 오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과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군악단 일군들과 창작가, 연주가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함시오 잊지 말고 혁명군악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잊을수 없는 주제 100(2011)년 9월 12일 몸소 우리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악의 성격에 맞게 가사, 예술화, 선율화면대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지휘자, 연주자들이 몸을 움직이지 말고 군공이 나게 연주하며 군악의 성격에 맞는 작품들로 리듬과 박자를 강하게 주는 원칙에서 편곡형상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군악을 군대맞이 하고 화약대가 풍기는 군악, 세계일류급의 군악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창작창조 활동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하고 회야대가 풍기는 군악을 창작창조하기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습니다.

이런때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말씀을 구현하여 노래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조선인민군 가》, 《해안포병의 노래》, 《승리의 열병식》을 비롯한 휘주악곡연주에서 타악기의 역할을 높여 리듬과 박자를 강하게 줌으로써 박력있고 경쾌한 군악향연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였습니 다.

또한 우리는 모든 작품창조전통을 철저히 발명해산악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갔습니 다.

총포란이 울부짖는 전장에서 화선연주회를 하는 심정으로 우리 식의 힘있는 군악곡들을 창조하자, 이것이 창작가, 연주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였습니다.

긴장된 훈련과정에 음색 통일, 주법 통일, 음색통일이 원만히 실현되고 전반적인 안삼블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주회준비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인민군군악단이 공격전투의 맨 앞장에서 나가는 제1세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창조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습니 다.

만사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휘주악 《조국찬가》도 우리 창작가들의 화선시창조기공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휘자, 창작가, 연주가들로 노래에 대한 편곡경쟁이 조직되고 집체합창제가 밤 깊은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금관악기와 타악기들의 박력있는 리듬을 바탕으로 하고 애국가와 《빛나는 조국》의 선율과 《조국찬가》의 선율을 북적거리우르로 밀착시킨 우리 식의 군악작품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들이 준비한 군악연주회를 또다시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휘주악 《조국찬가》를 원곡의 사상적내용과 정서적적격을 살리면서도 군악의 특성에 맞게 편곡을 재치있게 잘하였다고, 김길일에게 주치의 약독하는 우리 조국의 젊은 모습과 거세찬 습격을 정중하고 풍만한 울림, 박력있는 리듬으로 잘 표현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군악연주회가 세해에 들어와 지난해에 큰 힘을 주었다고, 분명한 평가를 주시었으며 친히 감사를 주시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이 령 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개별한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군악단은 혁명군악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가행사를 성파적으로 보장하고 전투적인 군악시위행진과 연주를 진행하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로써야서 진행된 제1차 원동국제군악대전에서 우리의 군악을 연주했을 때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평가적이고 변화적인 음악이 흥수처럼 밀려오니 군악의 본래가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진짜군대음악, 수령칭송의 군악을 궁지높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시대를 노래하고 조국을 빛내이는 세계적인 명가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 모란봉악단 부단장 장정애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수들을 빠른 시간안에 훌륭하게 키우겠는가 고 걱정만 하고있던 어느날 악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가수들이 눈과 귀를 뛰어야 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량향진을 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명가수들의 노래형상기법을 늘리고 보급 하도록 당부하셨습니 다.

그러하여 우리 악단에서는 예술선전대 대장 리강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시고, 그 때서 악단가수들이 형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식의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며 그것도 원래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악단가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부풀게 받아안은 우리들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대중가요의 세계에 자신있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악단이 조직된지 몇달밖에 열린 시범공연무대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는 물론 여러편의 세계명곡과 세계동화명곡들을 우리 식으로 형상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지만 악단의 가수들모두를 독자적인 몸통을 하는 훌륭한 가수로 키우는 일은 아득한 멀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악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세 공연준비과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노래 《어머니》를 너서2중창으로 공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일당백》 구호를 지위버리라고 지령여대던 반당반혁명공과분자들과 맞서 싸운 1960년대 대덕산근위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핵으로 하는 선동시곡 《신년의 장자가 되자》를 창작하여 이변 경연무대에 내놓았던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당정책화살인 예술선전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전연부대의 예술선전대 대장으로서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공을 예술활동전반에 적극 구현하여 군인대중이 있는 곳마다에 우리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내세워져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통일 대업의 명령을 내리시던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번개같이, 백두의 폭풍같이 단숨에 날려막 끝까지 달려나갈수 있게 사상의 명준모, 노래의 편속포성을 팽팽 울리는 우렁찬 돌격나팔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 2년 첫 무대에 나선 우리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동지들이 기억하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주기법과 풍성한 울림으로 판중의 심금을 울려잡은 기악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때 가수들의 노래는 어설프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판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향기로 족다 발을 안겨준것은 오래간만에 황홀하고 특색있는 대중가요무대가 열렸는것이 기쁘고 반가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악단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관적인 문제인 명가수육성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바로 저에게 지워져있었던것입니다.

어떻게

